

사설

2월 들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 추위가 계속되면서 저절로 추위에 몸이 움츠러든다. 전방 고지를 비롯해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이보다 더욱 추울 것이다. 강추위 속에서 조국수호를 하고 있는 늠름한 장병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60년만에 처음이라는 이번 추위가 어서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돌아오기를 기다려본다.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추위보다 더욱 추운 곳에서 고성군의 명예를 위해 젊음을 불사르는 학생들이 있다. 평창 알펜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계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고성고등학교와 고성중학교, 간성초등학교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그들이다.

경기가 열리는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린다고 한다. 이처럼 추운 곳에서 근 한달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은 마침내 지난달 30일 열린 제26회 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 대회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성고 바이애슬론 선수단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7년만이라고 한다. 알프스 스키장이 운영되던 과거에는 1

전국 제패한 바이애슬론을 키우자

위를 한 적이 많았으나 최근 7년 동안은 2위와 3위는 많이 차지했지만, 우승의 운은 없었던 것 같다. 공교롭게도 알프스 스키장이 중단된 이후 우승이 뜸했다.

바이애슬론 선수들은 지역에 스키장이 없어 타지로 전지훈련을 떠나 연습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스키 명문'이라는 고성군의 명예를 다시 한번 살려냈

다. 그래서 이번 전국 제패가 더욱 값진 것이다.

이번 승전보는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신을 차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제외하고는 무엇하나 자랑삼을 것이 없는 고성지

역에서 바이애슬론 하나로 전국을 제패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제 남은 3~4개의 경기에 출전한 뒤 고향으로 돌아올 이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값진 우승을 일궈내며 고성의 저력을 전국에 알린 고성의 '영웅'들이다.

이번 대회에 선수단을 이끌고 함께 출전한 홍성운 고성고 스키코치와 천강훈 전 국가대표는 지난해 고성군에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을 제안했다. 공식 문서를 접수한 뒤 개별적으로 군의원들과 군수를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고 한다.

고성의 바이애슬론은 경기력으로 볼 때도 그러하지만, 강원도 체육 담당 공무원이 평가하기에도 강원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지금, 고성군의 명예를 전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길은 바로 바이애슬론을 키우는 것이다. 전국을 제패하고 돌아오는 선수들에게 꽃다발이나 진수성찬보다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것보다 큰 선물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던 시점에 연평도는 물론, 고성군에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다음 차례에는 고성군에 추가적인 북한의 포격이 가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몇 주간 비상 대기 조치가 내려졌고, 고성군도 주민 대피장소 선정 및 새로운 대피호 구축 등과 같은 조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는 이야기

김정균 칼럼위원



고성군 안보비용 2천만원, 너무 적다

고성군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

이와 같이 고성군은 연평도처럼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초기부터 DMZ에서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고성군을 잃게 되면 적은 파죽지세로 속초, 양양, 강릉 등을 점령하고 나아가 인접한 인제, 홍천, 횡성, 원주 등 강원도 전체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다.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단위:천원)

사회단체명	보조금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45,276
고성군재향군인회	26,370
바르게살기 고성군협의회	24,560
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	19,460

고성군 주민 대다수는 고성군민이 3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3만명이지,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2만명 이상의 군인들이 있다는 것을 때때로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군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역 내에 있는 예비군을 관리하고 육성해야 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고성군에는 약 1,500명의 예비군 들이 있고 그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책임은 각 읍면예비군 중대와 40관리대대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비군들의 관리·훈련에 대한 예산 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고성군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고성군 안보의 중요성, 고성군민과 비슷한 규모로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 향토예비군을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고려할 때 2천만원이라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너무 규모가 적다.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제일 꼴찌다. 예산이 없어 그렇다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예산도 적고 인구도 적은 양양군이 4천만원이다. 속초는 예산이 많아서 5천7백만원일까?

안보는 군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7번 국도에 내건 플랭카드에 주민 1인당 예산이 속초는 250만원, 고성군은 657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면 속초보다 예산이 적어서 육성지원금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표〉에서 보듯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교해 보더라도 향토예비군 1,500명을 관리하고 있는 부대에 2천만원을 책정한 것은 너무 적은 규모인 것이다

안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언제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상시 소홀히 하면 반드시 낭패를 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하다. 그것이 국가안보일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중국 송대의 公案집인 '벽암록'에 '줄타 동시'라는 말이 있다. 닭이 알을 품었다가 닭이 차면 알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찢는 것을 '줄'이라 하고, 그 반대로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마주 쪼아 껍질을 깨뜨려 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알속의 병아리와 어미닭이 같이 쪼아 주어야 한 마리의 온전한 병아리가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보는 군·민(주민)이 함께 할 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예비군 육성지원금 2천만원은 고성군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타 시군과 지역내 기관단체에 비해 너무 적다. 고성군의 안보에 대한 인식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군·민과 고성군과 주민이 함께 하는 안보를 위하여 올해에는 더욱 많은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 가운데 '사설'을 제외한 모든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란 기고·독자투고 원고 받습니다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고성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임 직 원 : 발행인 윤승근 편집국장 최광호 취재기자 원광연 총무과장 김창순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도연
칼럼위원 : 김광섭 김정균 김종식 김지연 남숙희 남영선 박형수 이선국 최금란 한성주 황연옥
시민기자 : 강성희 김일용 김태극 박선애 백옥식 장공순 최돈불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